

올레tv서 킹덤 본다... '진격의 넷플릭스'

오늘부터 KT IPTV서 서비스 넷플릭스, 韓 고객 850만명 확보 KT, 가입자 점유율 확대 등 기대 국내 OTT시장 외산 영향력 우려

KT가 자사 인터넷TV(IPTV)에서 '넷플릭스'를 서비스한다. 넷플릭스는 국내 유료방송 1위 사업자와 손잡고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선두 사업자 굳히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3일부터 '올레tv' 가입자들은 넷플릭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레 tv에서 넷플릭스 이용 시 가족이 하나의 이용권으로 함께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도록 요금제에 따라 최대 네 명까지 동시 접속할 수 있다.

넷플릭스는 LG유플러스 이후 KT와의 추가 제휴를 통해 KT의 850만명 IPTV 가입자를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8년 넷플릭스와 독점 계약을 맺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가입자 45만여명이 늘고, IPTV 매출은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제휴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아클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52만8084명이던



KT 모델들이 올레 tv에서 제공하는 넷플릭스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KT

넷플릭스의 월간 활성이용자(MAU)는 지난해 12월 387만6604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5월에는 637만4010명을 기록, 1년 사이에 2.5배 성장했다. 그만큼 국내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커진 셈이다.

KT 또한 넷플릭스와의 제휴를 통해 가입자 점유율 확대 효과를 노리고 있다. 특히 KT는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현대HCN과 인수·합병(M&A)도 추진하며, 국내 유료방송 시장 1위 굳히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넷플릭스 또한 KT와의 빠른 제휴를 통해 경쟁자인 국내 OTT 사업자와 국내 진출 예정인 글로벌 OTT 플

랫폼인 '디즈니 플러스'를 견제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넷플릭스 진출 이후 국내 OTT 시장은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다.

SK텔레콤과 국내 지상파 3사가 연합해 '웨이브'를 출시해 콘텐츠 투자 등에 나서고 있고, CJ ENM과 JTBC가 합작한 '티빙', KT의 '시즌' 등도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넷플릭스 대항마로 꼽히는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시장 진출 또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 콘텐츠는 대만, 일본 등 아시아 시장에서 영향력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휴는 넷플릭스가 국내 OTT 시장 선두를 지키고

국내 OTT의 콘텐츠 공급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뤄진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특히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진출하기 전에 먼저 방어하고 자리를 잡기 위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약에는 KT가 넷플릭스로부터 망 이용료를 받는 근거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그간 넷플릭스와의 협상서 "망 이용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20대 국회에서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해외 CP들 또한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기도 했다.

넷플릭스와 제휴하지 않은 SK브로드밴드의 향후 또한 관심이 쏠린다. SK브로드밴드는 현재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를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소송전이 마무리 돼야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날이 갈수록 커지는 해외 OTT 사업자들의 국내 시장 영향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한양대

'건강한 연구실' 선정

한양대는 최지웅 해양융합공학과 교수의 해양융합공학 연구실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회 건강한 연구실'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건강한 연구실'은 젊은 과학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정책이다. 연구실 문화와 성과가 우수한 연구실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건강한 연구문화 확산과 연구자 사기 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선정된 연구실은 장관상과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이현진 기자

연세대-브레인OS연구소

스마트시티·미래교육 맞손

연세대 스마트시티 융합서비스 연구개발단은 지난달 30일 브레인OS연구소와 스마트시티 구축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각 개인의 뇌성향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각 개인은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고,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추천받을 수 있다.

/이현진 기자

KAIST

국제핵비확산학회 개최

KAIST는 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공동으로 4일~6일까지 3일간 '제7회 국제핵비확산학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학회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축사를 전하고, 브렌트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NNSA) 차관보가 연사로 참여한다.

학회에서는 ▲2020년 핵비확산동향 평가 ▲동북아 평화와 북한의 비확산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홍수 기자 hys@

새만금 햇빛나눔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지난 30일 새만금 햇빛나눔사업 사업시행자 모집 우선협상대상자로 아리울태양광발전 컨소시엄(대표사 주식회사 한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리울태양광발전 컨소시엄은 대표사 ㈜한양을 비롯해 한국서부발전(주) 등 총 5개사로 구성됐다. 새만금 햇빛나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생명용지 내 저류지에 사업자 시행계획서에 따라 최종 수상태양광 73MW급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다.

/한홍수 기자

동국대

중강당 좌석기부 캠페인

동국대 중강당의 433개 좌석마다 동문 이름과 그들의 '사연'이 새겨진다.

동국대는 동문들의 학창시절 추억 속 한 칸을 자리잡고 있는 중강당에 '좌석기부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중강당 좌석기부' 캠페인은 본관 중강당 433석의 좌석에 일정액의 후원과 함께 본인의 이야기와 이름을 새기는 캠페인이다.

/한홍수 기자

사립대 30% 등록금 반환 확정... 1인당 평균 10만원

사총협 4년제 153곳 조사 반환 재원론 주로 특별장학금 14개 대학은 2학기 등록금 감면 67곳 '검토중' 23곳 '계획없어'

4년제 사립대 3곳 가운데 1곳은 1학기에 재학생들에게 생활비 또는 특별장학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특별 장학금 혹은 생활비를 전체 재학생에게 지급한 대학은 18곳이었다. 앞으로 지급할 예정인 대학도 32곳이나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7~24일 153곳 사립대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153곳 중 104곳이 응답했다.

지급 금액은 10만원이 가장 많았다. 18곳 가운데 11곳이 학생 1인당 10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3곳이 20만원 ▲1곳은 15만원 ▲1곳은 5만원을 지급했다. 2곳은 지급 금액을 밝히지 않았다.

특별장학금 지급 등 등록금 반환 재원론으로는 교내 장학금이 가장 많이 쓰였다. 153곳 가운데 과반수인 79개교(51.6%)가 재원 마련 방법(복수응답)으로 교내 장학금을 꼽았다. 이어 ▲60곳(39.2%)은 교비·등록금 일부 ▲47곳(30.7%)은 교직원·동문 기금 ▲43곳(28.1%)은 정부지원금으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대학 40개교는 전체 학생을 대상



지난 1학기는 코로나19로 대학 수업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셌다. /뉴시스

으로 특별장학금을 지급하지는 못했지만, 형편이 좋지 않은 일부 학생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했다.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인 곳도 7곳이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장학금 지급을 확정된 50개 대학을 합하면, 코로나19 관련 해 어떤 형식이든 지원하는 대학은 총 97곳에 달하는 셈이다.

2학기 등록금 반환 계획을 확정했거나 학생들과 협의 중인 사립대는 81곳(52.8%)이었다. 감면 계획이 확정된 대학은 아직 14곳(9.1%)에 그쳤지만, 검토 중인 대학은 67곳(43.7%)으로 추후 등록금 반환을 확정하는 대학이 대폭 늘 것으로 보인다. 반면, 23개교(15%)는 감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그간 계획을 내놓지 않던 대학들도 속속 반환 결정을 하고

있어 반환 확정 대학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3차 추경을 통해 마련된 1000억원을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등록금 감면을 위해 자구 노력한 대학만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누적적립금 상위 대학도 이에 가세할 것으로 보이며 등록금 반환 대학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인철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은 적립금 상위 10위 안에 드는 대학 중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한 곳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2주 전 10개 대학 총장이 만나는 모임에서 학생, 학부모의 재정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 등록금 환원 효과를 낼 수 있는 특별재난 장학금을 지정하기로 했다"라면서 "등록금의 5%~10% 정도로 기준을 정해 자율적으로 장학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10개 대학 모임'은 누적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누적적립금 10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상위 20개 대학 대부분이 서울 주요 대학인 점을 고려하면, 특별재난 장학금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10개 대학 또한 누적적립금 상위 20위 이내 대학일 가능성이 크다.

김인철 회장은 "특별기금(적립금)이 과도한 대학이 분명히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고, 각 대학에 특별기금 적립 규모와 비례해 특별장학금 규모를 증액시켜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적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은 ▲홍익대(7570억원) ▲연세대(6371억원) ▲이화여대(6368억원) ▲수원대(3612억원) ▲고려대(3312억원) ▲성균관대(2477억원) ▲청주대(2431억원) ▲계명대(2310억원) ▲동덕여대(2230억원) ▲숙명여대(1866억원) 등이다.

/이현진 기자 ihj@